

Title: Jonah part 3 Sermon Notes

Scripture: Jonah 2:1-6

Date preached: October 24th 2021

Scripture: Jonah 2:1-6**1 Then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from the fish's belly. 2 And he said:****“I cried out to the LORD because of my affliction,
And He answered me.****“Out of the belly of Sheol I cried,
And You heard my voice.****3 For You cast me into the deep,
Into the heart of the seas,
And the floods surrounded me;
All Your billows and Your waves passed over me.
4 Then I said, ‘I have been cast out of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5 The waters surrounded me, *even* to my soul;
The deep closed around me;
Weeds were wrapped around my head.****6 I went down to the moorings of the mountains;
The earth with its bars *closed* behind me forever;
Yet You have brought up my life from the pit,
O LORD, my God.****1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2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3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었습니다.****4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5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6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Review chapter 1

Last time we looked at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of Jonah. Jonah we said was a prophet from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God came to him with a particular mission. He was tasked to travel to the Assyrian city of Nineveh and tell them that God was not happy with their wickedness. The Assyrians, a barbaric and cruel pagan people were Israel's enemies. Jonah therefore had no desire to carry this message to them and decided to defy God. He boarded a ship in Joppa that was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ne God had told him to go.

We often look at Jonah and consider him to be a foolish and rebellious. This is certainly true, but there is much we can learn from the prophet Jonah. Sorry to break this truth to you but in our own lives we too are often foolish and rebellious. We might not try to physically flee from God as Jonah did, but we do frequently live in open defiance of what God wants. For example, are we holding bitter feelings inside about someone? Are we refusing to forgive a sin against us? Are we trying to explain away or excuse sinful actions or thoughts in our lives? Are we ignoring God's call to act or behave in a certain way? All of these things are examples of us trying to flee from God's presence or influence in our lives.

It was not long before Jonah became aware that he had not successfully escaped from God. God hurled a fierce storm against the ship and it appeared that they all would be lost. The sailors prayed for deliverance to their various gods. Meanwhile, Jonah slept deeply in the hold of the ship. When he was finally aroused the sailors drew lots and discovered that Jonah was responsible for the storm. He told them that he was running away from God. They quite rightly wondered why he was doing such a stupid thing. Jonah tells them that the only way to calm the sea is to throw him overboard. The sailors are reluctant to throw the servant of this powerful God to his probable death in the sea try to row to land. This proves impossible and so Jonah is thrown overboard. As the waves engulf him, and he begins to sink he must have thought his adventure was over. God however was not finished with Jonah. He had prepared a mighty fish that would swallow Jonah and keep him safe inside its belly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This was where we left Jonah at the end of chapter one.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서의 첫 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한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앗수르의 도시 니느웨로 여행을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에게 말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야만적이고 잔인한 이교도 민족인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옴바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배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를 보고 그를 어리석고 반역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지만 우리는 선지자 요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진리를 깨뜨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어리석고 반항적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육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속으로 쓰라린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죄악된 행동이나 생각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영향력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우리의 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도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맹렬한 폭풍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그들의 다양한 신들에게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요나는 배의 선창에서 깊이 잠들

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깨어났을 때 선원들은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폭풍우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요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이 강력한 신의 종을 육지로 노를 저어 바다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파도가 그를 삼키고 그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모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를 삼키고 밤낮 사흘 동안 요나를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강력한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 장의 끝에서 요나를 남긴 곳입니다.

Overview chapter 2

All of chapter 2 except verse 10 takes place inside the great fish. We can however divide the chapter into three sections.

2 장의 모든 내용은 10 절이 큰 물고기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Jonah begins his prayer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다	Verse 1
2	Jonah opens his heart in prayer to God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여다	Verses 2-9
3	God responds to Jonah's prayer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Verse 10

1 Jonah begins his prayer

We left Jonah at the end of chapter 1 in the belly of the great fish. As I said last time I know that many people struggle to believe that a man could be swallowed and live inside a fish for three days. I do not personally find it troubling. We are after all not reading about something natural taking place. This is a miracle or something supernatural. Therefore we cannot give a precise scientific explanation for how it all happened. We must accept by faith that God divinely stepped into the natural world to preserve the life of Jonah. Jonah was destined to spend three nights and three days inside the whale.

This too was all a part of God's plan. It was a precursor of an even greater salvation that also took three days and nights to accomplish.

Let us then try to imagine Jonah in the belly of the great fish. Dark, wet, and miserable as he was tossed around as the fish moved through the water. It is difficult to know what would be better. To die by drowning or to be swallowed and die slowly inside a fish. In this desperate situation Jonah did what thousands before and after have done when all hope seems lost. He turned to God and petitioned Him through prayer. Interestingly this is the first mention we have in the book of Jonah praying. We might imagine that a prophet is in frequent communication with God. The Old Testament prophets enjoye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Jonah however was a rebellious prophet who was running away from God. Therefore up until this point he was trying to avoid communicating with God.

Before we have a look at Jonah's prayer in more detail let us take a moment to talk about prayer in general. What exactly is prayer? In very simple terms prayer is talking to God. But there is more to

it than that. Prayer according to Billy Graham,

“Is spiritual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God, a two-way relationship in which man should not only talk to God but also listen to Him.”

That's a useful way to think of prayer. Prayer is defined as communication, which means that it requires two things. A process of giving and receiving. Most of us think of prayer as talking to God and asking for what we want or need. We run through our list of needs or demands and then say amen and go about our day. Too often we forget the part where we listen to what God has to say. I think many Christians, and I include myself here find prayer difficult. After all most days are fairly similar. The things I pray do not vary much and my prayers become rather formulaic.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seek God's help with. Prayer must never be seen as just a religious act or duty. Prayer is us making a heart connection with our loving heavenly father. As the reformer Martin Luther notes,

“Prayer must be a raising of the heart to God. If our heart is not lifted towards God we are not praying.”

As we look now at Jonah's prayer I think we can see how his heart is lifted to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우리는 1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삼켜 물고기 속에서 3 일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계에 신성하게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나는 고래 속에서 3 박 3 일을 보낼 운명이었습니다.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밤낮 사흘이 걸리는 더 큰 구원의 전조였다.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상상해 봅시다. 물고기가 물 속을 이동할 때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처럼 어둡고 축축하고 비참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의사하거나 삼켜 물고기 속에서 천천히 죽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수천 명의 이전과 이후에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향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언급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자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는 반역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용어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Billy Graham 에 따르면 기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소통,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하는 양방향 관계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생각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의사소통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고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필요 또는

요구 사항 목록을 살펴보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를 포함하여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날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고 내 기도는 다소 형식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적했듯이,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의 마음이 우주의 주권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Jonah opens his heart in prayer to God

Let us consider for a moment the prayer we might pray if we suddenly found ourselves in a desperate situation. Imagine we are in a plane that hits a pocket of turbulence and drops alarmingly. Our prayer at such a moment would be short and to the point.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Please save me God.” We see something altogether different with Jonah's prayer. This is a well-thought-out and structured prayer in the form of a psalm of thanksgiving. It is not the desperate cry for help we might expect. This may indicate that Jonah spent some time composing or crafting the prayer whilst inside the fishes belly. But it also reflects that at the moment of his great fear of being drowned God delivered him. He deserved death for his rebellion and disobedience but God had shown him mercy. Now he is in the “relative safety” of the fishes belly. He prays then as one who feels safe even though at the time of the prayer he cannot know what will happen to him. As we examine Jonah's prayer we might notice that it incorporates many phrases and figures of speech from the Psalms. He is not quoting the psalms directly but rather paraphrasing closely what the psalmists wrote.

This shows us that Jonah was a man who intimately knew God's Word. He had it memorized and ready to recall. There is much to be said commending scripture memorization. In the past Christians often devoted considerable time to learning scripture by heart.

Now I suspect we rely too much on our mobile phones or computers to read or check scripture. Let us look at Jonah's prayer

우리가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난기류에 부딪혀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는 비행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요점일 것입니다. "하느님, 저를 구해주세요."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감사의 시편 형태로 잘 생각되고 구조화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기도를 작곡하거나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역사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의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죽음을 맞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는 물고기 뱃속의 "상대적 안전"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시편에 나오는 많은 구와 비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쓴 것을 밀접하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암기하고 회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구 암기를 칭찬하는 것은 할 말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자

2 “I cried out to the Lord because of my affliction, And He answered me. “Out of the belly of Sheol I cried, And You heard my voice.”

Jonah begins with a cry to the Lord. In times of despair and crisis who else can help us. The Lord we are told had not forgotten or forsaken him. From the very depths, both in terms of distance and attitude away from God the Lord answered him. How reassuring that should be to us. No matter how far we fall away from God He is ever attentive to our small and insignificant cries for help.

요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절망과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주님은 그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분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작고 보잘 것 없는 부르짖음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3 For You cast me into the deep, Into the heart of the seas, And the floods surrounded me; All Your billows and Your waves passed over me.

Jonah here recognizes that it was ultimately God who lay behind him being thrown into the sea. It may have been the sailors who threw him but it was God's hand of discipline behind it. Jonah might have thought he was running far from God, but he had always remained in God's hand. We would do well to remind ourselves of this from time to time. As God's children He is never far from us in just the same way that a devoted parent watches over their child.

여기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자신의 배후에 누워 계신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를 던진 것은 선원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은 헌신적인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4 Then I said, ‘I have been cast out of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Jonah found himself tossed around by the waves for some time. This led him to wrongly assume that God had forsaken or forgotten him. He felt as if God had turned His back on him. Despite this he was determined to seek God in prayer. Looking toward God's "holy temple" is used here as a synonym for praying (the temple being the place of prayer in Israel). We should never forget that no matter what we do the relationship we enjoy with God is never severed. He always remains our loving heavenly Father. When we sin we do however damage the fellowship we have with God. This is why regular confession and repentance is required.

요나는 한동안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는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로 남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손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고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5 The waters surrounded me, even to my soul; The deep closed around me; Weeds were wrapped around my head.

We sense here in verse 5 something of Jonah's helplessness in the water. He is in effect a prisoner of the sea. As he clung precariously to the life within him he sank ever lower and the sea weed entangled him.

우리는 여기 5 절에서 요나가 물 속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실상 바다의 포로다. 그가 그 안에 있는 생명에 위태롭게 매달렸을 때 그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고 바다 잡초가 그를 얽혔습니다.

6 I went down to the moorings of the mountains; The earth with its bars closed behind me forever; Yet You have brought up my life from the pit, O Lord, my God.

As he sunk to the bottom of the sea Jonah felt as if life was over for him. Amazingly his downward descent is halted. God has lifted him up from the pit of death. We too should never forget the pit that God lifted us out of. We were dead in our sins and yet Christ in His mercy reached down and pulled us up to life.

바다 밑으로 가라앉자 요나는 자신의 삶이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하강은 멈췄다.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구렁이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렁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지만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살리셨습니다.

7 “When my soul fainted within me, I remembered the Lord; And my prayer went up to You, Into Your holy temple.

As Jonah felt his life ebbing away he remembered God and turned to Him. It is a sad truth that often we only turn to God in prayer at moments of crisis and despair. How much better it would be if our thoughts and attentions were constantly fixed upon our loving heavenly Father.

요나는 자신의 삶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향했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만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8 “Those who regard worthless idols Forsake their own Mercy.

An idol is anything that takes God's rightful place. This might be money or wealth, it might be our intelligence or intellect, it might be our expertise or physical strength, or as with pagans their belief in the gods of the own invention. When we believe any of these things might save or help us in times of trouble we are putting our hopes in worthless things that cannot help us. When by contrast we worship the living God we find that He is loyal, reliable and trustworthy.

우상은 하나님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부, 우리의 지성이나 지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전문 지식이나 체력일 수도 있고, 이교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

거나 도울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에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 But I will sacrifice to You With the voice of thanksgiving; I will pay what I have vowed. Salvation is of the Lord.”

Jonah's desperate situation brings him back to his senses. He had foolishly run from God but now he would turn to God and praise and worship him. He will offer Him thanks because obviously inside the fish he cannot make an animal sacrifice. He will also make a vow, most probably this is a promise to faithfully serve God and do what He asks. He ends his prayer with a statement of triumph. God alone has the power to save. He, being God can choose whom He so desires. It is therefore in Him alone that our hope lies. Thanks to His son our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we too just like Jonah can say salvation is of the Lord.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물고기 안에서 동물 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서원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말로 기도를 마친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도 요나처럼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God responds to Jonah's prayer

Chapter two ends with God's response to Jonah's prayer. God who had prepared the fish and commanded it to swallow Jonah speaks again and makes it vomit Jonah onto the land. This shows us a number of things. Firstly it demonstrates that God is indeed in supreme control of all things. Secondly it demonstrates that Jonah had genuine faith in God. He truly believed that God could save him from the belly of the fish. Thirdly and finally it shows us that Jonah was now willing to be obedient to God's call and do as he was told. Next time we will see what happens when God again calls Jonah to act.

2 장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납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며 요나를 땅에 토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최고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요나가 이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가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one point to highlight from today's passage.

The importance of memorizing God's Word

I remember watching an interesting experiment carried out on Christian young people in America. A

researcher quoted lyrics from popular hit songs of the day and then paused. In almost every case the young people knew what song lyrics came next. In many cases they could quote the next two or three lines of the song without error. In other words they had absorbed these lyrics and memorized them often subconsciously. Sadly the bible had not had anywhere near the same impact upon them. The bible describes God's word as living and active (Heb 4:12), as a lamp and a light to guide our way (Psl 119:105), as profitable for teaching, reproof and correction (2 Tim 3:16) and as the words of eternal life (John 6:68). When we look back on all the other useless, trivial things we memorize in life its shameful that as Christians we do not know more of the bible. This probably explains why so many Christians are wishy-washy and ineffective. It's hard to be firm and decisive about what God says about an issue when you do not really know for sure yourself. Jonah as we have seen in today's passage had absorbed God's Word. When he prayed God's truths came out and shaped his thoughts. In his time of great need God's truth was there for his comfort.

You may argue back and say that you have your smart phone always with you, or a real bible at hand. Why bother memorizing scripture. The answer is simple. If it's in your heart and mind then your heart and mind is filled with what it needs. God's truth is readily accessible to guide, instruct and inform both yourself and others. Let me finish with the words of pastor Chuck Swindoll,

“I know of no other single practice in the Christian life more rewarding, practically speaking, than memorizing Scripture. No other single exercise pays greater spiritual dividends! Your prayer life will be strengthened. Your witnessing will be sharper and much more effective. Your attitudes and outlook will begin to change. Your mind will become alert and observant. Your confidence and assurance will be enhanced. Your faith will be solidified.”

Let us then be purposeful and deliberate in learning God's Word and having it memorized and ready to go.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

미국의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실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그 날의 인기 있는 히트곡의 가사를 인용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젊은이들은 다음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오류 없이 노래의 다음 두 세 줄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가사를 흡수하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암기했습니다. 슬프게도 성경은 그들에게 거의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고 활력 있는 것으로(히 4:12), 등불과 우리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시편 119:105),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딤후 3:16)에 유익하다고 묘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요 6:68) 우리가 인생에서 암기하는 다른 쓸모없고 사소한 것들을 돌이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왜 그토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헛된 희망과 효과가 없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자신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고하고 단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그의 생각을 형성했습니다. 그에게 큰 도움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거나 손에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암기하는 것을 귀찮게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다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은 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성경을 암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더 보람 있는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운동도 이보다 더 큰 영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강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증거는 더 날카롭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와 전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깨어 있고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과 확신이 향상될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암기하고 갈 준비를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숙고합니다.